

서울 샘터 교회

2019년 8월 18일

교회력(다해), 전체 38주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강림후 열째 주일** 창조절

☞ 오늘의 말씀 -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박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사 5:7).



꽃사과가 한여름 햇살을 받는 중이다.
2019년 8월16일 오후, 영천 북안면 대원당길 111

예배처 소
공동예배
간식 / 친교
교우모임
목사
홈페이지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대방동) 여성플라자
4:00~5:00
5:00~5:20
5:20~6:20
정용섭 (010-8577-1227, 053-856-1227), 박재진, 이춘우
<http://dabia.net/x/churchs>

이번주는
4층 시청각실

개회예전

예배의 부름 ... 목사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런 일에 파묻혀서 삶의 토대를 놓칠 수 있습니다. 삶의 궁극적인 토대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잡하고 분주한 일상을 접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찬송 30장 (전능하고 놀라우신) 1,2,4절 ... 다 함께

*공동기도 ... 다 함께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오직 한마음으로 예배드리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바치는 예배는 단순히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세상에서 영혼의 해방을 경험하고 종말의 생명을 열망하는 이들이
기쁨과 환희로 기꺼이 참여해야 할 거룩한 축제입니다.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는 고독과 허무와 늙음과 죽음이
우리의 영혼을 종종 깊은 충격과 두려움으로 몰아넣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생명 총만과 구원 희망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 모두 감사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지금부터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 계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찬송 새로운 예배찬송 469장(거룩송) ... 다 함께



***사죄기도 ... 다 함께**

목사: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시대의 요구를 무작정 추종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영혼의 깊이가 날이 갈수록 빈곤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중: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마 5:3)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우리는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교만이 우리 삶의 주인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회중: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사: 세상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사죄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람이 사람을 수단으로 다루고, 업적과 능력만을 삶의 목표로 삼으면서 자신이 생산한 것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아멘!

***침묵기도 ...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다 함께**

***사죄선포 ... 목사**

목사: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1:9).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이 말씀과 2천 년 예배전통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아뢴 모든 죄는 용서받았으니 기뻐하시고, 이웃의 잘못도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함께: 아멘!

***영광찬송 『한국교회와 리마 예식서』에서 ... 다 함께**

감격하여 이강민

영 - 광 을 주 님 께 영 - 광 을 주 님 께
 높 이 계 신 주 님 께 영 광 -

***평화인사 ... 다 함께**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중: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 국악찬송 180장 (좋은 일이 있으리라) ... 다 함께

오관석 한태근

1. 하 나 념 을 진 심 으 - 로 부 - 르 는 - 자 는 -
 2. 예 수 념 을 구 - 주 - 라 부 - 르 는 - 자 는 -
 3. 성 령 념 의 인 - 도 - 를 구 - 하 는 - 자 는 -
 좋은일이 있으리라 많이있으리라 -
 우리 서로뜨-겹게 사랑하-면은 -
 좋은일이 있으리라 크게있으리라 -

말 씬 예 전

설교전기도 ... 다 함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를 생명의 세계로 끌어 주기 위해
서 거룩한 말씀들이 기록되게 하셨으니 이 시간 우리 영혼이 허탄한 생각에 기
울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인도해주십시오. 예수 그
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독서 이사야 5: 1-7 ... 김용성 집사

성서교독 시편 80: 1-2, 8-19 (새로운 예배시편 번역) ... 다 함께

이스라엘 목자시여 귀기울여 주옵소서 요셉가문 양떼처럼 이끄시는 주하나님
그룹위에 계신주여 모습드러 내옵소서

-에브라임 비롯하여 이스라엘 가문앞에 모습보여 주옵소서 능력펼쳐 주옵소서
애굽에서 뽑아오신 하나님의 포도나무 이방인들 쫓아내사 그자리에 심으신후
-그땅에서 가꾸시고 뿌리뻗게 하시오니 그나무가 온땅가득 무성하게 찻나이다
높은산이 포도나무 그그늘로 뒤덮이고 울울창창 백향목도 그가지에 가리우니
-포도나무 가지들이 지중해에 다다랐고 새순들은 동쪽끝의 강가까지 닿았어라
그런데도 어찌하여 그울타리 부수시고 길지나는 사람마다 포도따게 하나이까
-깊은숲속 멧돼지들 뛰어나와 짓이기고 그열매를 들짐승이 마구먹게 하나이까
온세상의 주하나님 다시한번 돌이키사 하늘에서 보옵시고 포도나무 지키소서
-오른손을 펼치시어 손수심은 이줄기와 몸소굳게 키워주신 이헛가지 볼드소서
주님이름 부르면서 영광찬송 돌리도록 우리들을 살리소서 우리들을 살리소서
-온세상의 주하나님 우리세워 주옵소서 주하나님 밝은얼굴 지금보여 주옵소서

제2독서 히브리서 11: 29 - 12: 2 ... 김용성 집사

*제3독서 누가복음 12: 49-56 ... 김용성 집사

*응답찬송 『한국교회와 리마 예식서』의 '알렐루야' ... 다 함께



설교 "정의" ... 이춘우 목사

설교후기도 ... 설교자

찬송 449장 (예수 따라가며) 1,2,5절 ... 다 함께

봉 헌 과 친 교 예 전

신앙고백 사도신경 ... 다 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
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
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헌금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1절 ... 다 함께

중보기도 ... 목사

주기도 ... 다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
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알림 ... 목사

파 송 예 전

*마침찬송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절 ... 다 함께

*위탁의 말씀 ... 목사

이제 성령강림 후 열째 주일 공동예배가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일상이 기다
리고 있는 세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의를
추구하십시오.

*축복기도 ... 목사

*후주 ... 반주자

[알리는 말씀]

* 예배 후 반별 공부모임이 있습니다.

- 그리스도교 사상사: 박재진 목사
- 과학과 신앙: 김용성 집사
- 기도와 교제: 오미영 집사
- 청소년 반: 김재남 집사

* 나라를 위한 기도- 올해는 3.1 독립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남북 분단체제와 동북아의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을 비롯한 우리 모두 중심을 잡고 한민족의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오늘의 문제를 풀어가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해야겠습니다.

* 교우들을 위한 중보기도- 드러내지 못할 큰 어려움을 당한 가정, 몸과 마음이 아픈 교우,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교우, 낙심하고 있는 교우, 세상일에 너무 쫓기는 교우,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모, 자녀들로 인해서 걱정할 수밖에 없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난주일 현금 250,000원

(2019/8/11) 현금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2-252-788537 이기령

8,9월 예배준비

	예배일	예배 인도	성경봉독	현금 / 안내
성령강림후 10주 8/18	4층 시청각실	이춘우	김용성	윤혜정
성령강림후 11주 8/25	2층 세미나2실	박재진	채진진	오미영
창조절 1주 9/1	2층 세미나1실	이춘우	고중흥	이기령
창조절 2주 9/8	2층 세미나1실	정용섭	윤동희	양혜선
창조절 3주 9/15	추석 연휴 휴관			
창조절 4주 9/22	4층 아트컬리지3실	박재진	신창식	박수진

8월 11일 설교 “믿음” 발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만이 아니라 시편을 비롯한 모든 성경이 말합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너무 빠른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들리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세력과 논쟁하는 중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원래 그렇게 존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똑같은 세상에서 살지만 이렇게 생각이 다릅니다. 논쟁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자연과학이 발전할수록 기독교의 창조 신앙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들은 자연과학이 설명할 수 있는 것만을 실재(reality)라고 주장합니다. 빅뱅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세상에는 우연한 일들이 왜 발생하는지를 다 알지 못하는 이유는 자연과학이 충분할 정도로 발전하지 않아서라고 말합니다. 인공지능이 나온 뒤로는 이런 주장이 더 강력해졌습니다. 인간의 문제와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인공지능과 같은 자연과학이 다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에 관해서 히 11:3b 절이 중요한 관점을 짚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보이는 것은 지금의 세계입니다. 보이는 물질로서의 세계가 물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루터는 이를 철학적인 의미를 살려서 번역했습니다. “보이는 만물은 무에서(aus nichts) 만들어졌습니다.” 나타난 것의 반대인 나타나지 않은 것을 루터는 무(無)라고 표현한 겁니다. 무는 단순히 없다는 개념이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근원을 가리킵니다. 이런 말들이 어떤 이들에게는 말장난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차원을 생각하면 무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를 말하지 않고는 유(有)를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나 나타난 것만 생각하면서 삽니다. 하늘, 땅, 나무, 고양이, 하루살이, 뽕구기, 아파트, 도로, 다리, 자동차는 다 보이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이는 것들만이 실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나무와 고양이의 중간쯤 되는 생명체는 없습니다. 그런 생명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옵니다.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말인 생명체가 그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무와 유의 근본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는 뜻입니다. 무는 왜 없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는 2019년 8월을 살고 있습니다. 5백 년 전은 오늘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니 오늘 우리에게 일종의 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5백 년 전이 없으면 오늘도 없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138억 년 전의 빅뱅이 오늘을 있게 하는 근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세계는 아득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다층적이고 심층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신비롭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고 외쳤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믿음은 희망하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세상의 실체를 믿음의 눈으로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인간의 이성적인 인식 능력으로만 세상을 바라보지만, 우리 기독교인은 믿음으로 세상을 봅니다. 자연과학자들이 말하는 이성적 인식 능력과 비교하면 기독교의 믿음은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성적인 인식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인간 인식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리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물리의 세계를 알면 알수록 모르는 부분이 더 늘어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양자역학이 발견된 이후로 엄밀한 자연법칙이 별개로 존재한다는 주장도 힘을 잃고 있습니다. 과학자가 어떤 관점으로 대상을 관찰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궁극적인 물리의 세계에는 확정되거나 예측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걸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양자가 미시의 세계라서 우리의 일상에서는 실감이 나지 않지만, 그 양자가 세계를 구성하는 토대라는 점에서 세상은 여전히 비밀로 가득하다는 사실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비밀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권능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는 떠돌이 다그네 인생을 살면서도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주어질 것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그런 확신이 더 강해질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은 경험해보셨나요?